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멕시코만 석유유출 지급보험금, 14억 달러 추정

- 미국 보험정보원(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, III)은 지난 4월 22일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원유시추선 침몰사고로 인해 보험회사가 지불해야 할 보험금이 1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함.
 - III의 이코노미스트 로버트 하트윅(Robert Hartwig)은 이번 시추선 사고가 해양 에너지 관련 보험사고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지적함.
 - 이번 사고는 시추선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원유의 흐름을 차단하는 장치인 원유유출 제어기(Blowout preventer)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멕시코만 일대에 수십만 배럴의 원유가 유출되고 있음.
- 원유시추선과 같은 거대 프로젝트의 경우 여러 보험회사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으며, 회사내부에 자가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보험회사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.
 - 원유시추선과 같이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사고에 대비하여 광범위한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를 통해 글로벌한 규모로 리스크를 분산함.
 - 또한 이번사고의 당사자인 브리티시페트롤리엄(BP)과 같은 대형 석유회사의 경우 사고발생액이 보험가입액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내부유보자금을 보유하고 있음.
- 미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는 시추선이 아닌 유조선에 의한 사고였으며 이때에도 보험회사 지급보험금은 피해액의 일부에 그친바 있음.
 - 미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는 1989년 발생한 유조선 엑손 발데즈(Exxon Valdez)호 사건으로 알래스카 연안에 3만 7천 톤의 원유가 유출됐으며 환경정화비용만 25억 달러가 투입되고 벌금 등으로 10억 달러가 추가됨.
 - 이때에도 사고피해액의 대부분을 엑손사가 자가 부담하고 보험회사는 수 억달러만을 보상한 바 있으며 이번 기름 유출사건 또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임.
 - 한편, 가장 피해가 컸던 석유시추선 사고는 1988년 북해에서 발생한 것으로 원유 유출 피해는 없었으나 폭발과 화재로 167명이 사망하고 현시가로 34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함.

(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, 5/5)